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4호 [루게 제2774호]

주체 112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음력 9월 14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풍요한 가을, 맞이할 승리는 더욱 눈부시다

공화국창건 75돐과 당창건 78돐을 뜻깊게 경축한 공화국인민들이 올해를 조국력사에 크게 आरो세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년말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를 맡은 농업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례년에 보기 드문 호풍한 풍년작황을 마련한 기쁨과 자랑을 안고 날알릴기, 결산분배 등을 진행하고있다. 전야마다에 땅이 꺼지게 잘 익은 낱알들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여 황금의 로직가리를 높이높이 쌓아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차년치고있다.

얼마전 서해북창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농사를 총화하는 결산분배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시기 뒤떨어졌던 많은 농장들이 올해에는 용을 쓰며 일어나 높은 소출을 뱀다는 소식이 려일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르게 하여주고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계절에 풍작의 기본 소식만 전해진것이 아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비료생산기지들에서는 올해 시비년도 영농비료공급계획수행에서 일대혁신을 창조한 좋은 경험을 적

국 살려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질소비료고지점령을 향해 기세 좋게 전진하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전기수요를 만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대증직기술희신운동력을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호기당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고속도굴진정기를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일별, 월별, 순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속에 10여개의 단위가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런가 하면 사리원보이라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최고생산년도실적을 돌파하였고 경공업 부문에서는 질종고 쓰기에 편리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제발전에서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창안도입하여 생산장성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고조되는 애국열의, 증산투쟁은 올해의 빛나는 승리를 기약해주고있다.

다 아는것처럼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인 세번째 해인 올해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공화국이 거둔 성과는 참으로 경이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

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것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긍지를 안겨주고있다.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 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공화국핵전쟁억력의 신뢰성이 만방에 과시되고 적대세력들은 공포의 비명을 지르고있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들은 그 어떤 적대세력도 넘볼 수 없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힘을 남김없이 만천하에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놀랄만한 성과들이 계속 이룩되고있다.

건설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방대한 대건설사업이 계획대로 힘있게 진행되며 수도와 지방에 새 거리, 새 살림집들이 려이어 완공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그칠줄 모른다.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새로운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차게 추진하고있으며 대평지구에서는 새로 건설

된 1400세대 살림집에 새집들이하는 경사가 펼쳐져 수도의 먼모가 황홀해지고 수도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져 되었다.

또한 대규모 강돈은실농장건설,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이 활기있게 추진되고 농촌진흥의 새시대에 맞게 각지에서 황홀한 농촌문화주력들이 려욱 일떠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관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인민경제 각 부문, 단위들에서도 올해 계획된 생산목표들을 넘쳐 수행하고 정비보강계획을 올해에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 큰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관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각 도들에 현대적인 젓소목장들이 일떠서고 주체적화학공업발전에 이바지할 하나의 소중한 재부인 12월5일 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이 준공하여 나라의 화학공업을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인 해에 자랑찬 승리를 내다보게 하여주는 공화국의 이 벅찬 현실은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며 이

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절세의 위인의 불같은 열망과 탁월한 령도, 불면불휴의 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आरो세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승리의 리정표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 인민의 양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올해 과업을 성정확관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각 도들에 현대적인 젓소목장들이 일떠서고 주체적화학공업발전에 이바지할 하나의 소중한 재부인 12월5일 청년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이 준공하여 나라의 화학공업을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국가부흥의 웅대한 목표들의 완별하고도 실속있는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상반년간의 간고하고도 격렬한 투쟁완결속에서 이룩한 혁혁한 성과들을 총화하고 하반기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결정

하도록 하시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어 공화국인민들이 올바른 진로를 따라 확실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하여주시고도 수많은 단위들을 찾고찾으시어 기적과 혁신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태풍에 의한 피해로 수백정보의 간석지논이 물에 잠겼을 때 그것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를 잊지 못하고 있다.

허리까지 치는 침수된 간석지논에 들어가시어 벼의 생육상태에 대해 알아보시며 그리도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농촌진흥의 해, 변혁의 해로 되게 접하였었다. 나라의 농업생산문제때문에 마음쓰시며 자연재해를 입은 농장들을 찾고 또 찾으신이 이 농장별에도 우리 군인들의 충성의 구슬땀이 뿌려져있다고, 우리 군인들의 애국충성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었던 이곳에도 황금이삭이 설레이는 바다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축복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로 나선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앞에는 벅찬 사면들로 आरो세겨진 올해의 마감까지 더 알찬 성과로써 멋있게 마무리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나시고 있다고, 모두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분기함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라는것을 열렬히 호소한다고 하시었다.

정녕 올해를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하는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의 령도따라 전체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펼쳐나선 힘찬 진군이 있어 2023년의 더욱 풍만한 결실이 마련되어가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인민들은 령도자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비약적성과들을 안아올것이다.

본시기자 주일 봉



# 세 상 에 서 제 일 좋 은 인 민 의 나 라

## - 가 요 《 내 나 라 제 일 로 좋 아 》 를 들 으 며 -

공화국의 방방곡곡에 세기와 새대를 이어가며 높이 울려 퍼지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폼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팔라팔라 팔라라 팔라팔라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이다.

노래가 창작된 때로부터 퍼그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은 온 나라 인민들 모두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사는 더없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부르고부르는 명곡이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인 주제80(1991)년 4월 15일, 잊지 못할 그날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공연무대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아이들도 어른들도, 조국을 찾아오는 해외동포들도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 부르고 부르는 노래이다. 인제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 우리 인민은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고있다고, 노래가사에도 있는바 같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 좋다고, 우리 나라는 사회제도가 좋고 산천도

아름다우며 공기와 물이 맑아 참말로 살기 좋은 나라 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부러워하고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생활도 있고 철학도 있는 참으로 훌륭한 명가사이라고,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다는 심오한 사상은 비단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을 다니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민 모두가 느끼는 한결같은 감정이라고, 그렇기때문에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것처럼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켰던 것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누구나 세계각각을 창조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먼저 떠올린다. 특히 영화가 시작될 때 서막에 펼쳐지곤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활달하신 친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사람들이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에 기초하여 최현덕편, 차종기편, 로동계급권을 비롯하여 영화의 수많은 편속편들이 만들어져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각기한 년대, 각기한 계층의 주인공들은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한 인물들이다. 피뢰지역에서 살다가 혹은 해외에서 살다가 진정한 조국인 공화국에 운명을 맡긴 영화의 주인공들은 말할것도 없고 온 나라 인민이 세대를 이어오며 공화국의 품이아말로 진정한 삶의 품, 어머니조국의 품이라는것을 심장으로 깨닫고 예국의 한결을 걸었다.

세인이 꿈인하는 것처럼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공화국의 시책들만 보아도 인민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의 이익을 위해 복종지향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잘 알수 있다. 돈 환론 안받고 12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대학공부도 시켜주는 제도, 사회보험제,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의사담당구역제, 산전산후휴가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해주는 제도, 국가부담에 의한 어린이교육요양제도...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세계제도를 완전히 없앨

대한 법령도 채택함으로써 인민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랑의 시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었다. 인민들이 받아안은 사회적 혜택도 나날이 커지고있다. 최근 몇해동안에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등 인민적시책을 반영한 수많은 법들이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되었다.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육아원과 예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이 고아의 실움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고있고 경치좋은 곳에 일떠선 궁궐같은 양로원들에서는 돌봄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이 땅에 일떠서고있는 인민의 보금자리와 인민을 위한 행복의 창조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공편이 아니다.

공화국에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되고 있다. 수천척지마학장에서 현실의 땅을 밟아가는 란부들과 외지 산골이나 섬마을 학교에 자진하여 달려가는 교

원들,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준 처녀들, 남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 지어 생명까지도 바치는 소행을 비롯하여 미덕과 미용이 사회의 슬결로, 국공으로 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한 세계 여러 나라 인사는 자자들의 심중을 다음과 같이 타놓았다. 《사회가 안정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팔고부 잘사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잘사는 사람이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가 맞아 키우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에서 세금도 받지 않고 로동자, 농민들에게 집도 거저 지어주고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철따라 옷을 해입히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가 맡아 키우고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조선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수 없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정

치의 근본으로, 어쩔수 없는 국책으로 하고있다. 수십년간 지속되는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계속 실시되고있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참다운 존엄을 빛내어가는 조선의 근로자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조선은 진정한 근로인민의 세상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 되어 가장 보람찬 삶을 누리는 존엄하고 행복한 인민은 공화국인민에게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상에는 정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살길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그칠새 없고 분쟁과 전쟁으로 류혈적인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있으며 기아와 재해로 파탄된 보금자리를 잃고 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근로인민은 극소수 특권층의 치부를 위한 희생물로 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은 나날이 늘어나는 인민적시책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웃음꽃을 피워가고있다. 무엇이 풍족하거나 남아돌아가는가 아니다. 국가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웠기에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을 위한 사랑의 시책들만이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는것이다.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 높고 강대한 나라이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을 잃으면 국호가 있어도 빛이 없고 인민이 굴종과 치욕, 불행과 고통을 면할수 없다.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실행리론이나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의사와 리익,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지난 세기 90년대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공화국인민이 민족대국상을 당한것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을 고립압박하기 위해 미처날릴 때에도 공화국은 자주의 기발을 추호도 내리우지 않았다. 공화국이 참다운 인민의 나라, 자주의 나라로 만방에 빛을 뿌릴수 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을 대대로 높이 모시기때문이다. 인민위전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

을 바치시어 이 땅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빛내주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념 위천의 사상을 천공으로 지니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 자주의 한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오늘날 공화국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사회주의락원으로 행성에 우뚝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로고가 어려있는 행복의 보금자리, 창조물들마다에 실려오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그대로 노래가 되어 하늘땅에 울려 퍼지고있다. 정녕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어 행성에 빛을 뿌리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고 인민은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는 것이다. ...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곳 내 다시 안길 땀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팔라팔라 팔라라 팔라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본시기자 유금주



# 10 월 에 새겨 보는 어 비 이 사 랑

지금으로부터 10년전 10월 풍치수려한 문수지구에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세월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에서 의료상봉조를 받을 수 있게 된것은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메여놓고 단 한순간도 생각할수 없다. 지금도 잊을수 없는 주제 103(2014)년 3월의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의료봉사기체인 류경치과병원을 찾으시었다.

의료봉사로 한창 붐비는 병원에서 너무도 뜻밖의 경애하는 그이를 비움게 된 의사, 간호원들은 물론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모두가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다. 몸소 치과병원건설을 맡기시고 설계로부터 치료설비보장과 의료인군들을 꾸리는 문체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고 곳곳 비 내리는 날에도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병원 건설과 운영준비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치과병원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또 다시 병원건설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볼수 있게 병원운영을 잘하기 위한 강력적과업들을 제시해 주시었다. 그러시고도 인민들에게 못

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운명중에 있는 병원에 찾아오시어 의료봉사실내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당에서 류경치과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치과병원이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만복을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향을 우려하며 병원의 의료인들은 물론 병원에 왔던 각계층 인민들 모두가 속주저오르는 격정에 눈금을 칠시었다. 잊지 못할 그날 옥류아동병원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자국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그이께서는 치료예방사업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약이 무엇인가, 어린이들속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무엇인가, 운영하는 과정에 고장난 설비들은 없는가 등 병원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알아보시며 필요한 대책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병원의료인들에게 한평생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의료봉사활동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며 뜨거운 정성을 바쳐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세상에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수없이 많지만 옥류아동병원처럼 나라의 령도가자 맡고대려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려주신 아이들의 병원은 그 어디에도 없다. 평양산원과 마주한 곳에

아동병원을 건설하도록 친히 위치도 선정해주시고 건설력량과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주시였을뿐 아니라 설계형성안도 수시차레나 보아주시며 매 방에 놓을 의료설비와 비품들에 대해서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 사랑, 억수로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협한진장들을 주저없이 밝으시며 건설현장을 찾으시였던 절세위인의 불멸의 자욱,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동병원에 놓을 청단의료설비들을 몸소 해결해주시였으며 아동병원에 직속기착륙장까지 건설하도록 하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한평생 앞만 아동병원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어 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명명해 주신 그 다심한 은정을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인민은 다시금 새겨본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그의 잊지 않는 헌신과 로고분.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류경안과중환병원과 대성산 종합병원, 삼지연병원, 묘향산의로기구공공장, 보건산소 공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통일거리온통센터 등 이 땅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현대적인 병원들과 보건기자들, 행복의 별칭지들은 경애하는 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결실체들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격정속에 목매어 뱉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이 있어 모진 시련속에서도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고.

### 수필 **함흥미삭의 무게를 두고**

으로부터 가을은 가없이 높은 하늘과 풍성함을 자랑하는 절기라 칭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일러왔다. 그래서인지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노라면 산더미처럼 로적가리를 쌓아놓고 걸산분배장이 들썩이게 울려 퍼지는 《함흥미삭》의 선율이 들려온다. 실 두들신 농악무를 펼친 농작원들이 겨우 입사한 멋쟁이새끼의 마당이 춤다하게 가득 무쳐놓은 분배반은 앞곡들을 바라보며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집주인들의 흥겨운 모습들이 정말 장관중의 장관이다. 호젓한 그 광경들을 보노라니 이태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라의 제일 큰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배천벌로 탄원해나온 조국애가 얼마전에 전화로 하던 말이 떠오른다. 《우리 집에서 신문이랑 TV를 보셨지요? 우리 역도 농장에서 얼마정도 걸산분배를 했는데 모두 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풍작이라고들 떠들썩해요. 분배장에서 나랑 우리 청년분조원들이 신이 내게 농악무를 주는 장면도 많이 촬영했는데요 뭐.》

다 자란 처녀가 철부지 어린이처럼 여기랑을 부리며 댕기는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나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제리한 감회가 스며든다. 해마다 맞이하는 가을이지만 이해따라 땅이 꺼지

잘된 이 풍요한 작황이 ऐसा 쉽게 안겨오지 않기때문이다. 문득 가슴 못내리게 사무쳐오는 화석이기에. 재방이 무너져 바다물이 허리까지 치는 침수된 간석지벌에 서슴없이 들어서서서어 지워헤를 입어 벌경제 된 벼이삭들을 안락이 끌어보 시며 가슴아파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그 벼이삭들을 자신의 함흥을 다 바치서라도 기어이 지켜주고 싶던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싶은 단 한알도 버릴수 없는 억만금의 재부였고 자신의 실결과도 같은것이였다. 하기에 그 참혹한 현실안에 누구나 맥을 놓고 주저앉아 천만락을 하고있을 때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자연의 광란도 길들이는 강인담대한 배양과 역사의 의지로 농작물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즉시적이며 과학적인 만반의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인민들과 군인들을 산악같이 일떠세워주시지 않았던가. 그 헌신의 자국은 서해만이 아니라 동해에 자리잡은 안변군 오계, 월랑농장의 전야에도 령력히 어그러졌거니 잇을수 없는 그날 논벼에서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정성남

리 훈

# 세기를 이어 빛나는 민족문화전통

사회주의전진적발전은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과거에 전제되고있는 속에 공화국에서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절박하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3일 단군릉에서는 개천절행사가 진행되며 반만년 민족사를 가진 궁지와 자부심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여주었다.

또한 주요명절과 휴식일이면 사람들이 민족의상을 펼쳐 입고 율동과 장기를 비롯한 민속놀이와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기풍이 커가는 속에 지난해에는 락랑지구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락랑박물관이 일떠서고 남포시에도 민속공원이 새로 꾸러졌다. 또한 평양시 강동군과 개성시에서 옛 유적들이,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국보급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각지에 있는 많은 역사문화유적들에 대한 복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명승지들의 참관도로를 보수하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 풍경을 더는 사업들도 진행되었다.

위대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속에서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훌륭히 계승되고 널리 발전하고있는것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공화국을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 문명국, 특성변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제103(2014)년 10월 2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力作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발표하시어 민족유산보호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사업을 잘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과업,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데 일떠서고 있는 판서를 돌리고 계시는것이 하는것은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우리 민족의 상부기풍의 하나인 말타기를 장려하도록 하시어 온 나라에 승마바람이 일도록 해주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 문화유적들에 대한 복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명승지들의 참관도로를 보수하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 풍경을 더는 사업들도 진행되었다.

위대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속에서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훌륭히 계승되고 널리 발전하고있는것은 민족의 역사와

상적으로 하면 근육이 발달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허리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하시면서 미림지구에 대중적인 승마봉사기지를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미림승마구락부가 현대적으로 일떠서고 승마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발전시켜나가기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은 이 땅위에 일떠서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주제103(2014)년 7월 어느 날 건설중이 있는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공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국제비행장으로 들어가는 순안리입구에 대성산혁명렬사릉처럼 평양국제비행장이라고 쓴 민족적양식의 문주를 세우고 항공역사의 처마밑에 백호무늬 같은것을 같은 색으로 약간 두드러지게 장식하는것이 좋겠다고, 평양항공역은 평양의 관문, 우리 나라의 열성이다. 그런가 하면 지방들의 정표라고 말할수 있다고, 그러므로 항공역사를 건축형

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평양국제비행장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새 세기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태어날수 있었다.

어제 평양국제비행장이었는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양로원이며 농촌진흥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떠서는 농촌문화주택들도 자기 지방의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어 사람들에게 민족적자긍심을 높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미용량속도 널리 장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우리 민족의 옷차림문화의 하나인 조선바지저고리를 즐겨 입도록 하여주시고 새집들이한 가정을 찾을 때에는 성냥을 비롯한 생활용품들을 들고 가는것이 풍습으로 되어온데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였으며 《아리랑》을 비롯한 민족성을 보여주는 상표들을 명제품, 명상품에 달아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높이고도록 해주셨다. 그런가 하면 지방들의 정표라고 말할수 있다고, 그러므로 항공역사를 건축형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듯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나 가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속에 경요향풍과 고려성공관, 선교를 비롯한 개성시의 력사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민족 《아리랑》, 김치담그기풍습, 우리 인민의 근면한 로동생활과정에 창조되고 발전되어 온 조선씨름이 세계비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력사유적들과 유물들이 발굴고궁되어 민족적근지는 날로 높아가고 민족성은 더욱 활짝 꽃피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찾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인사들은 《민족성이 활짝 꽃피는 이 땅이 진정 내 조국이다》,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는 조선의 모습은 밝은 태양을 기약해준다》고 찬사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정령 호르는 세월과 더불어 줄기차게 이어지고 빛을 뿌리는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철세의 예고자,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셔 민족의 력사와 전통이 굳건히 지켜지고 빛날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안게 된다.

김철준

## 민족음식에 어린 다심한 손길 (3)

국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의 하나이다.

이런 국수가운데는 예로부터 그 이름도 유명하여 조선국수의 대명사로, 조선민족음식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평양랭면도 있다.

평양랭면이 단연 첫손가락에 꼽히는것은 국수오리와 국물, 꾸미, 양념, 말기, 그릇 등에서 특성이 있기에문이다.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메밀을 국수감으로 쓰는 평양랭면은 국수오리가 지나치게 질기지 않고 먹기 맞춤하며 구수한 향기와 맛으로 하여 더욱 인기가 높다. 또한 국수국물을 기름을 걸러낸 맑은 고기국물에 동치미국물을 섞어 만들기 때문에 감칠맛이 날뿐 아니라 시원한 맛을 내는것이 특징이다.

이런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평양랭면은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론 추운 겨울날에도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으로 전해져왔다.

이 평양랭면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다심한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제100(2011)년 2월과 10월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옥류관에서 평양

랭면을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언제인가 평양시의 이름있는 식당들사이에 국수경연이 진행되었다.

평양랭면을 더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 친히 조직해주신 류다른 국수경연이었다.

옥류관에서 만든 평양랭면이 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든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국수는 옥류관이 제일 잘한다는 과분한 치하의 말씀과 함께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었다.

그때만이 아니었다. 감칠맛이 나고 시원하며 향기로운것으로 유명한 평양랭면의 육수와 국수발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이 깃들여있다.

언제인가는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국수발의 굵기와 반죽을 비롯하여 조리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의 고유한 맛과 전통이 살아나게 국수를 잘 만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봉사할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신 그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옥류관이 변장하여야 한다고,

옥류관이 잘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옥류관 종업원들이 인민을 위한 봉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옥류관국수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는 고유하고 독특한 맛이 있다고 하시면서 국수 옥류관이 옥류관이라는 높은 평가의 말씀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는 청류관의 평양랭면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두해전 12월에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청류관국수의 질이 옥류관국수에서 못지않다고 하시며 국수양념의 맛도 헤어주시고 앞으로 옥류관보다 국수를 더 잘할수 있다고 고무도 해주시었다.

그이의 말씀대로 청류관의 봉사자들은 평양랭면의 제법과 청류관특유의 맛을 잘 살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하기에 오늘날 이곳으로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평양랭면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평양랭면은 자기의 고유한 맛을 변함없이 살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민족음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최진욱



##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권리를 더 잘 보장하겠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 권리보장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가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평등권보장원칙에서도 장애 정도, 장애유형, 성별, 직업과 공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것에 관계없이 장애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가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었다.

차별, 학대금지원칙에서는 국가가 장애자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과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며 그들이 장애로 인하여 존엄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장애자에 대한 우대원칙과 장애발생의 방지원칙, 국제교류와 협조 등 법조항에도 그 어느 사회에서나 취약계층으로 불리우는 장애자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공화국의 따사로운 손길이 여러 여되었다.

기 자: 장애자권리보장법에 규정되어있는 장애자들의 권리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최영일: 우선 사회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장애자들에게 사회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한 성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여기서는 모든 장애자들이 각각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자들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정치조직, 사회단체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할수 있는 사회정치활동의 권리, 해당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채 따라 국가공무사업도 할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밝혔다.

이밖에도 장애자들의 견해표명, 신소형원, 사법분야에서의 권리보장에 대한 법조항들이 규정되어있다.

다음으로 장애자들의 교육, 보건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휘해나가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다 휴양권을 양보했다.

평범한 날에는 다 몰랐던 벗들의 뜨거운 우애심을 가슴 뭉클 느끼며 나는 이처럼 꾸밈없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일한다는 무한한 행복감이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이것이 양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나의 단편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얼마전 나에게 양보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머칠철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건설사업에 지원을 나갔을 때였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증소리들과 자동차경적소리, 호각소리, 혼합기 돌아가는 소리는 시대의 박동인양 나의 폐를, 아니 온몸에 신선한 공기처럼 흘러들었고 경쟁을 하듯 키를 돌리며 줄거 외워나가는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것이고 공감한다는것이며 아름답게 보고 느끼는것이다.

그렇다. 공화국인민들은 좋은것을 남에게 양보하는것을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아름다운 품성으로 간주하고있다. 양보하는 품성이야말로 참된 인간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재산상속권을 놓고 형제사이에 서로 죽일 내기를 한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일을 남에게 먼저 양보하는것이 일상사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얼마나 많이도 들어왔고 보아왔던가.

전후복구건설시기로부터 천리마시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돕고 양보하면서 덕과 정이 차넘치는 하나의 대가정을 꾸려온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 자기에 차려진 살림집은 무수없는 사람들에게, 새살림을 편 심훈부에게 먼저 양보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에게, 새살림을 편 심훈부에게 먼저 양보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에게 이야기하며 영광의 단상에 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한생 사람의 눈길에 덜 미치는 외진 초소에서 묵묵히 삶의 자욱자욱을 이룩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언제인가 기관에서 나온 휴양권이 온 부서를 들고 돌아오는데 해놓은 일도 없는 나에게 차려줬던 그날이...

그때 부서동무들은 내가 만성기관직으로 고생한다면 바다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나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을거라면서 저마

양보에 대한 생각

다 휴양권을 양보했다.

평범한 날에는 다 몰랐던 벗들의 뜨거운 우애심을 가슴 뭉클 느끼며 나는 이처럼 꾸밈없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일한다는 무한한 행복감이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이것이 양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나의 단편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얼마전 나에게 양보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

머칠철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건설사업에 지원을 나갔을 때였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증소리들과 자동차경적소리, 호각소리, 혼합기 돌아가는 소리는 시대의 박동인양 나의 폐를, 아니 온몸에 신선한 공기처럼 흘러들었고 경쟁을 하듯 키를 돌리며 줄거 외워나가는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것이고 공감한다는것이며 아름답게 보고 느끼는것이다.

그렇다. 공화국인민들은 좋은것을 남에게 양보하는것을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아름다운 품성으로 간주하고있다. 양보하는 품성이야말로 참된 인간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재산상속권을 놓고 형제사이에 서로 죽일 내기를 한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일을 남에게 먼저 양보하는것이 일상사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얼마나 많이도 들어왔고 보아왔던가.

전후복구건설시기로부터 천리마시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돕고 양보하면서 덕과 정이 차넘치는 하나의 대가정을 꾸려온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 자기에 차려진 살림집은 무수없는 사람들에게, 새살림을 편 심훈부에게 먼저 양보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에게, 새살림을 편 심훈부에게 먼저 양보한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에게 이야기하며 영광의 단상에 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한생 사람의 눈길에 덜 미치는 외진 초소에서 묵묵히 삶의 자욱자욱을 이룩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언제인가 기관에서 나온 휴양권이 온 부서를 들고 돌아오는데 해놓은 일도 없는 나에게 차려줬던 그날이...

그때 부서동무들은 내가 만성기관직으로 고생한다면 바다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나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을거라면서 저마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민족간부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키워내야 한다

주제39(1950)년 1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대표단으로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표단일행렬을 만나주시었다.

대표단 단장으로부터 사업정형을 로해하시고 그들의 사업성과를 치하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표단 성원들속에서 무척 낮은 한 일군을 보시고 못내 반가워하시었다.

수령님께서 그 일군에게 이번이 가서 돌아볼것은 다 돌아보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별로 한일도 없는 자기를 국가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내세워주신 그의 사랑에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방문기간의 사업정형을 보고드리었다.

그의 보고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던 수령님께서 못내 기쁘신듯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었다.

선생이 이번엔 소련에 가서 모스크바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을 돌아보고 교수

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 도서관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왔다고 잘 되였습니다. 우리 류학생들을 만나 학습정형과 생활형편을 로해하고 그들을 고무하여주고 온것도 좋은 일입니다.

학자대표로서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에 뉘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진정시켜야 하겠다고 하시었다가 이렇게 이르시었다.

대학에 가면 이번엔 본것을 참고로 하여 종합대학사업을 발전시켜나가기도 하여야 하겠소이다.

그러나 남의 나라의 경험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그대로 맞을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은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

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리용할수 있는 높은 과학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성과와 경험을 참고로 하더라도 우리 혁명에 필요한 민족간부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키워내야 한다고, 종합대학에서는 앞으로 우리 당의 교육사상과 교육방침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에 쓸모있는 인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키워내겠는가를 깊이 연구하고 이런 방향에서 대학사업을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었다.

하나를 가르쳐도 주제적립장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써먹을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주제적교육사상과 우리의 대학생들을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인재로 키워내길 바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베푼 흥분속에 받아안으며 그는 세대대들을 국가발전의 떼어내고갈 훌륭한 인재들로 키울 결의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조선말사전》에 깃든 애국애족의 마음

얼마전 총련의 출판기관인 학우서방이 제일동포들을 위한 《조선말사전》(전자판)을 출판발행하였다.

사전편찬사업에는 학우서방 일군들과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애국의 넋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편찬발행된 사전은 손전화기와 컴퓨터, 리눅스용 컴퓨터에 적체하여 리용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제일동포들과 학생들속에서 큰 호평을 받고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이역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우리 말사용은 조선사람의 고유한 넋과 민족성을 지켜나가기에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하기에 제일동포들은 제일조선인운동의 첫 시기부터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찌기 동포자녀들이 우리 말과 글을 모르면 민족의 넋을 잃게 된다고 하시면서 애국적동포들이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시작할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호비를 생명수로 하여 총련의 민주주의민족교육이 강화발전되고 그속에서 제일동포학생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총련에서 학생용《조선말사전》을 편찬발행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에서는 동포들사이에서 현저적대비를 이루는 수단인 우리 말과 글을 즐겨 쓰도록 하는것이 민족성고수의 출발점, 애국의 첫걸음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새기고 총련조직과 단체, 기관과 학교, 가정을 비롯하여 동포사회 그 어디에서나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이 량랑히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철세위인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학우서방 일군들과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들이 사전편찬사업에 착수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었다.

그들은 제일조선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전을 안겨주려는 불같은 열망을 안고 편찬사업에 대담하게 달려붙었다. 하지만 막아서는 예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편찬사업이 시작되어 한해가 지난뒤 이 사업에서 중

요한 몫을 맡아하던 조선대학교의 어느 교원이 중병으로 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 교원이 조국에서 치료를 받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어머니조국에서는 그에게 전문의진료를 붙여주었고 사전편찬사업을 위한 강력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를 비롯한 조국의 이름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자들이 사

전편찬사업에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었다.

조국의 지원과 방조에 힘을 얻은 편찬조성원들은 사전편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마침내 《조선말사전》이 훌륭히 완성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에서 《조선말사전》을 편찬발행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전편찬에 기여한 일군들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황 경 일



식민지고용군의 추악한 인권실태를 파헤쳐본다

윤석열역도와 괴뢰군부호정파들이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혁신》과 《강국혁신》을 제창하며 큰일을 벌였처럼 북새판을 꾸미고있다.

하지만 려대 괴뢰정권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반인민적 통치와 사대매국, 반공화국대결과 파쇼독재, 부정부패에 앞장서온 괴뢰군의 《혁신과 쇄신》은 미구라지가 뿜어 낼것을 바라는 황당무치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폭행과 범죄, 참사가 피리를 물고일어나고 절망과 타락에 허우적거리는 복직전쟁의 총알받이, 마피아를 통가하는 깡패집단, 도덕적타락의 말세집단인 괴뢰군의 추악한 인권실태를 파헤쳐본다.

한 부정적언론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수천명의 청년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도 병거리를 하고있으며 인터넷에는 군복무를 회피할수 있는 《군예》가 자라나고있다고 한다. 《군예》가 풀려간 청년들 역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앓는척하거나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키는 병사 고혈압관정을 받기 위해 병사에 복용해오던 혈압약을 우정 먹지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것은 물론 신체검사를 하는 날 위생실에 들어가 파격한 운동을 하여 혈압을 높이는 등의 수법으로 거짓진단을 꾸미며 군복무를 회피하고있다. 특히 군조종장교들속에서 영군종조가 확대되고있어 군부상층에서부터 내려가 감정제되고있다. 반년만에만도 군복무를 포기하고 재대된 초급장교는 특근에서만도 131명이고 2021년 한해에 비해볼 때 4배나 되었다고 한다.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파충한 정신적피로와 육체적부담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괴뢰군내에서 자살로 현실을 도피해보려는 비정상적인 사건들도 계속 일어

나고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특근부대에서 순찰하던 사병이 자살하고 평택에 있는 해군부대에서 사병이 자살하는 한것을 비롯하여 살인적인 훈련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자살자중 42%가 부사관들이라고 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군내에 만연하는 영전, 영군종조에 기입하여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신력을 극대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공부하게 하면서 사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통제나, 보수를 높여주고 진급 기회를 확대하며 근무수행후 원만한 휴식조건을 보장하겠다고나 하며 사기를 붙여넣어보려고 예언면하고있지만 등장에 배 쓸어만 치는것과 같은 허무맹랑한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패전의식, 영전, 영군으로 타락하고 사멸해 가는 오합지졸부리를 놓고 《정신무장》과 《기강확립》을 연발해도 그것은 시중창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망상이라는것이 오늘 합격지역민심의 한결같은 평이다.

죽어가는 괴뢰군사병들은 파도 같은 공포와 죽음, 노예살이에 지쳤으면 괴뢰군장성들과 가족년동들의 편의를 부화방탕을 위해 북부하는 《골프병》, 《레니스병》, 《관저병》을 비롯한 편제는 수많은 노예사병들속에서 《자살화해》는 폭포수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었다.

군상층부부대가 이렇게 썩었으니 괴뢰군내에서 벗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은폐하고 하듯 괴뢰군내에서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사병들가운데 마약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들은 수십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축소보편되고는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걸려진 마약범죄자는 118명이나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련천의 한 특근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무리로 자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남강원도에 주둔한 부대의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자택에서 마약주사를 맞다가 현장에서 걸려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이 하느님》이라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괴뢰군내에서 각종 도박꾼들이 성행하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룡들을 사취하거나 훔쳐 암시장에 내다팔고있어 온갖 추문거리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최근년간 실업이나 공포탄, 수류탄 등 전투물자들을 부대밖으로 빼돌려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 132건에 달하는 사실은 괴뢰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추기범죄의 근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야만적인 폭행과 기합, 인간중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괴뢰군장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강령범죄들도 마구 저질러 사회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지난 10월 괴뢰특공군검찰단이 형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의하더라도 지난 몇년간 괴뢰군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군장병들은 6 955명에 달하였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폭력,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1 563명으로서 4년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범죄자들중에는 장성으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괴뢰군의 모든 계층이 다 들어있었다고 한다.

괴뢰지역의 각계층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 괴뢰군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에 경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군인과 로무자들이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대한민국)은 망한민국》이라며 울분을 터놓고있다.

참으로 군부장성들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폐륜패덕과 악육강식, 환락과 방탕에 몰랐고 환강한 괴뢰군이아말로 부패타락의 세력, 인권침탈의 종합체, 인간말세의 전신징하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의 식민지공공이고 반민권의 오물장이며 우유전 강대집단인 괴뢰군의 극심한 인권실태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 천하의 매국역적인 윤석열역적패당은 감히 공화국의 자위적정체를 걸고들머 어리석게 그 무슨 《압도적인 우정》, 《선제타격》을 쫓아대고있다.

하지만 괴뢰들이 아무리 《선제타격》, 《우수근대》를 광고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식민지고용군, 기합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깡패집단인 괴뢰군의 필연적파멸은 불보듯 뻔하다.

배 영 일

한 부장적언론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수천명의 청년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도 병거리를 하고있으며 인터넷에는 군복무를 회피할수 있는 《군예》가 자라나고있다고 한다. 《군예》가 풀려간 청년들 역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앓는척하거나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키는 병사 고혈압관정을 받기 위해 병사에 복용해오던 혈압약을 우정 먹지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것은 물론 신체검사를 하는 날 위생실에 들어가 파격한 운동을 하여 혈압을 높이는 등의 수법으로 거짓진단을 꾸미며 군복무를 회피하고있다. 특히 군조종장교들속에서 영군종조가 확대되고있어 군부상층에서부터 내려가 감정제되고있다. 반년만에만도 군복무를 포기하고 재대된 초급장교는 특근에서만도 131명이고 2021년 한해에 비해볼 때 4배나 되었다고 한다.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파충한 정신적피로와 육체적부담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괴뢰군내에서 자살로 현실을 도피해보려는 비정상적인 사건들도 계속 일어

나고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특근부대에서 순찰하던 사병이 자살하고 평택에 있는 해군부대에서 사병이 자살하는 한것을 비롯하여 살인적인 훈련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자살자중 42%가 부사관들이라고 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군내에 만연하는 영전, 영군종조에 기입하여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신력을 극대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공부하게 하면서 사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통제나, 보수를 높여주고 진급 기회를 확대하며 근무수행후 원만

한 휴식조건을 보장하겠다고나 하며 사기를 붙여넣어보려고 예언면하고있지만 등장에 배 쓸어만 치는것과 같은 허무맹랑한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패전의식, 영전, 영군으로 타락하고 사멸해 가는 오합지졸부리를 놓고 《정신무장》과 《기강확립》을 연발해도 그것은 시중창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망상이라는것이 오늘 합격지역민심의 한결같은 평이다.

인간 말세의 범죄 집단

무모하고 광란적인 복직전쟁도 발발동은 미국의 바지개방이밀에서 서식하는 친미주류들의 존재 방식이며 체질화된 악습이다.

개는 나면서부터 쫓는다고 무지막한 공화국의 자위적역적에 눈앞이 튀질된 윤석열역도 역시 《힘에 의한 안보》를 마구 쫓아대며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가 하면 복직전쟁소동에 괴뢰군을 때려몰며 전쟁발발을 고취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전횡정기에 떠밀려 위 위험하고 강도높은 복직전쟁 연습에 끌려다니며 온갖 개고생에 시달리는 괴뢰군사병들은 파도 같은 공포와 죽음, 노예살이에 지쳤으면 괴뢰군장성들과 가족년동들의 편의를 부화방탕을 위해 북부하는 《골프병》, 《레니스병》, 《관저병》을 비롯한 편제는 수많은 노예사병들속에서 《자살화해》는 폭포수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었다.

군상층부부대가 이렇게 썩었으니 괴뢰군내에서 벗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은폐하고 하듯 괴뢰군내에서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사병들가운데 마약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들은 수십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축소보편되고는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걸려진 마약범죄자는 118명이나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련천의 한 특근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무리로 자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남강원도에 주둔한 부대의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자택에서 마약주사를 맞다가 현장에서 걸려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이 하느님》이라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괴뢰군내에서 각종 도박꾼들이 성행하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룡들을 사취하거나 훔쳐 암시장에 내다팔고있어 온갖 추문거리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최근년간 실업이나 공포탄, 수류탄 등 전투물자들을 부대밖으로 빼돌려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 132건에 달하는 사실은 괴뢰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추기범죄의 근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야만적인 폭행과 기합, 인간중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괴뢰군장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강령범죄들도 마구 저질러 사회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지난 10월 괴뢰특공군검찰단이 형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의하더라도 지난 몇년간 괴뢰군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군장병들은 6 955명에 달하였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폭력,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1 563명으로서 4년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범죄자들중에는 장성으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괴뢰군의 모든 계층이 다 들어있었다고 한다.

괴뢰지역의 각계층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 괴뢰군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에 경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군인과 로무자들이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대한민국)은 망한민국》이라며 울분을 터놓고있다.

참으로 군부장성들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폐륜패덕과 악육강식, 환락과 방탕에 몰랐고 환강한 괴뢰군이아말로 부패타락의 세력, 인권침탈의 종합체, 인간말세의 전신징하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의 식민지공공이고 반민권의 오물장이며 우유전 강대집단인 괴뢰군의 극심한 인권실태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 천하의 매국역적인 윤석열역적패당은 감히 공화국의 자위적정체를 걸고들머 어리석게 그 무슨 《압도적인 우정》, 《선제타격》을 쫓아대고있다.

하지만 괴뢰들이 아무리 《선제타격》, 《우수근대》를 광고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식민지고용군, 기합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깡패집단인 괴뢰군의 필연적파멸은 불보듯 뻔하다.

배 영 일

죽어가는 괴뢰군사병들은 파도 같은 공포와 죽음, 노예살이에 지쳤으면 괴뢰군장성들과 가족년동들의 편의를 부화방탕을 위해 북부하는 《골프병》, 《레니스병》, 《관저병》을 비롯한 편제는 수많은 노예사병들속에서 《자살화해》는 폭포수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었다.

군상층부부대가 이렇게 썩었으니 괴뢰군내에서 벗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은폐하고 하듯 괴뢰군내에서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사병들가운데 마약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들은 수십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축소보편되고는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걸려진 마약범죄자는 118명이나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련천의 한 특근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무리로 자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남강원도에 주둔한 부대의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자택에서 마약주사를 맞다가 현장에서 걸려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이 하느님》이라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괴뢰군내에서 각종 도박꾼들이 성행하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룡들을 사취하거나 훔쳐 암시장에 내다팔고있어 온갖 추문거리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최근년간 실업이나 공포탄, 수류탄 등 전투물자들을 부대밖으로 빼돌려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 132건에 달하는 사실은 괴뢰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추기범죄의 근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야만적인 폭행과 기합, 인간중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괴뢰군장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강령범죄들도 마구 저질러 사회의

죽어가는 괴뢰군사병들은 파도 같은 공포와 죽음, 노예살이에 지쳤으면 괴뢰군장성들과 가족년동들의 편의를 부화방탕을 위해 북부하는 《골프병》, 《레니스병》, 《관저병》을 비롯한 편제는 수많은 노예사병들속에서 《자살화해》는 폭포수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었다.

군상층부부대가 이렇게 썩었으니 괴뢰군내에서 벗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은폐하고 하듯 괴뢰군내에서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사병들가운데 마약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들은 수십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축소보편되고는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걸려진 마약범죄자는 118명이나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련천의 한 특근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무리로 자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남강원도에 주둔한 부대의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자택에서 마약주사를 맞다가 현장에서 걸려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이 하느님》이라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괴뢰군내에서 각종 도박꾼들이 성행하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룡들을 사취하거나 훔쳐 암시장에 내다팔고있어 온갖 추문거리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최근년간 실업이나 공포탄, 수류탄 등 전투물자들을 부대밖으로 빼돌려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 132건에 달하는 사실은 괴뢰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추기범죄의 근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야만적인 폭행과 기합, 인간중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괴뢰군장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강령범죄들도 마구 저질러 사회의

죽어가는 괴뢰군사병들은 파도 같은 공포와 죽음, 노예살이에 지쳤으면 괴뢰군장성들과 가족년동들의 편의를 부화방탕을 위해 북부하는 《골프병》, 《레니스병》, 《관저병》을 비롯한 편제는 수많은 노예사병들속에서 《자살화해》는 폭포수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었다.

군상층부부대가 이렇게 썩었으니 괴뢰군내에서 벗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은폐하고 하듯 괴뢰군내에서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사병들가운데 마약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들은 수십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축소보편되고는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걸려진 마약범죄자는 118명이나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련천의 한 특근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무리로 자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남강원도에 주둔한 부대의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자택에서 마약주사를 맞다가 현장에서 걸려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이 하느님》이라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괴뢰군내에서 각종 도박꾼들이 성행하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룡들을 사취하거나 훔쳐 암시장에 내다팔고있어 온갖 추문거리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최근년간 실업이나 공포탄, 수류탄 등 전투물자들을 부대밖으로 빼돌려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 132건에 달하는 사실은 괴뢰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추기범죄의 근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야만적인 폭행과 기합, 인간중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괴뢰군장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강령범죄들도 마구 저질러 사회의

죽어가는 괴뢰군사병들은 파도 같은 공포와 죽음, 노예살이에 지쳤으면 괴뢰군장성들과 가족년동들의 편의를 부화방탕을 위해 북부하는 《골프병》, 《레니스병》, 《관저병》을 비롯한 편제는 수많은 노예사병들속에서 《자살화해》는 폭포수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었다.

군상층부부대가 이렇게 썩었으니 괴뢰군내에서 벗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은폐하고 하듯 괴뢰군내에서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사병들가운데 마약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들은 수십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축소보편되고는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걸려진 마약범죄자는 118명이나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련천의 한 특근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무리로 자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남강원도에 주둔한 부대의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자택에서 마약주사를 맞다가 현장에서 걸려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이 하느님》이라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괴뢰군내에서 각종 도박꾼들이 성행하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룡들을 사취하거나 훔쳐 암시장에 내다팔고있어 온갖 추문거리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최근년간 실업이나 공포탄, 수류탄 등 전투물자들을 부대밖으로 빼돌려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 132건에 달하는 사실은 괴뢰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추기범죄의 근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야만적인 폭행과 기합, 인간중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괴뢰군장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강령범죄들도 마구 저질러 사회의

죽어가는 괴뢰군사병들은 파도 같은 공포와 죽음, 노예살이에 지쳤으면 괴뢰군장성들과 가족년동들의 편의를 부화방탕을 위해 북부하는 《골프병》, 《레니스병》, 《관저병》을 비롯한 편제는 수많은 노예사병들속에서 《자살화해》는 폭포수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었다.

군상층부부대가 이렇게 썩었으니 괴뢰군내에서 벗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은폐하고 하듯 괴뢰군내에서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사병들가운데 마약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들은 수십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축소보편되고는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걸려진 마약범죄자는 118명이나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련천의 한 특근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무리로 자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남강원도에 주둔한 부대의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자택에서 마약주사를 맞다가 현장에서 걸려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이 하느님》이라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괴뢰군내에서 각종 도박꾼들이 성행하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룡들을 사취하거나 훔쳐 암시장에 내다팔고있어 온갖 추문거리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최근년간 실업이나 공포탄, 수류탄 등 전투물자들을 부대밖으로 빼돌려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 132건에 달하는 사실은 괴뢰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추기범죄의 근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야만적인 폭행과 기합, 인간중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괴뢰군장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강령범죄들도 마구 저질러 사회의

죽어가는 괴뢰군사병들은 파도 같은 공포와 죽음, 노예살이에 지쳤으면 괴뢰군장성들과 가족년동들의 편의를 부화방탕을 위해 북부하는 《골프병》, 《레니스병》, 《관저병》을 비롯한 편제는 수많은 노예사병들속에서 《자살화해》는 폭포수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었다.

군상층부부대가 이렇게 썩었으니 괴뢰군내에서 벗어지는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은폐하고 하듯 괴뢰군내에서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사병들가운데 마약범죄로 재판에 회부된자들은 수십명으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축소보편되고는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걸려진 마약범죄자는 118명이나 된다.

지난 4월 경기도 련천의 한 특근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가 무리로 자발되었으며 9월 30일에는 남강원도에 주둔한 부대의 사병이 휴가를 나가 자택에서 마약주사를 맞다가 현장에서 걸려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돈이 하느님》이라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힌 괴뢰군내에서 각종 도박꾼들이 성행하고 장교들과 사병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룡들을 사취하거나 훔쳐 암시장에 내다팔고있어 온갖 추문거리들을 만들어내고있다. 최근년간 실업이나 공포탄, 수류탄 등 전투물자들을 부대밖으로 빼돌려 돈벌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 132건에 달하는 사실은 괴뢰군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추기범죄의 근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야만적인 폭행과 기합, 인간중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괴뢰군장교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강령범죄들도 마구 저질러 사회의



# 독재 《정권》에 파멸을 선고한 초불의 힘

—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와 본사기자가 나눈 대담 —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얼마전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미전략폭격기(B-52H)를 끌어들이어 조선남해상공에서 력대 처음으로 《한》미일련합공중훈련을 강행하였는가 하면 판도와 경성남도 거제시 주변 해상에서 《한》미일련합잠수함훈련과 《2023 다국간기뢰전훈련》을 벌인것이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의 이러한 전쟁소동들은 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무분별한 군사적행위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목표로 《해협의그루뵤》라는 핵전쟁기구를 가동시키고 핵전쟁모의를 련속 벌리는 속에 미전략폭격기를 끌어들이어 《한》미일련합공중훈련을 비롯한 각종련합훈련을 그칠새없이 벌리고있는것은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기도와 실형이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윤석열역적패당이 우리 민족의 친년속적인 십나라것들과 손을 잡고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은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창설책동에 돌격대로 주창해나선 여러적은 추태이다.

상시적인 군사적총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핵전쟁발발의 전운이 짙게 배회하는 조선반도에서 무분별한 전쟁광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하기에 괴뢰지역의 각계층도 《윤석열이 국민을 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고있다》, 《일본의 조선반도재침략을 조장하고있다》고 준렬히 규탄하며 반윤석열, 반미, 반일, 반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십나라것들의 허세생각기에 현혹되어 미일상전들을 하내치처럼 믿고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비참한 파멸을 앞당기는 가스로운 망동에 불과하다.

리현심

기자: 지난 10월 11일 괴뢰서울시 강서구에서 진행된 구청장보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대참패를 당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추속판이라고 할수 있는 이번 보충선거결과를 두고 야당들과 정치전문가, 각계층 주민들은 물론 보수패당내부에서까지 집권자에 대한 비난과 조소가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각계층 단체들의 반윤석열투쟁도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연구사: 그렇다. 지금 《민주로총》과 《전국여성농민회련합》 등 30여개의 운동단체들로 결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윤석열퇴진투쟁의 일치성을 보장하는데 힘을 쏟고있다.

특히 시 《초불의 바다에서 탄핵을 노래하자》를 비롯하여 윤석열퇴진투쟁을 선동하는 시와 노래들이 널리 창작 보급되고있으며 역적패당을 풍자한 조형물전시회들도 개최되어 각계층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를 보도하지 못하게 역적패당이 언론들을 통제하는데 대처하여 진보단체들은 《계속 모이고 일하고 뚫고 뚫고 뚫고》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다.

기자: 현실들은 각계층의 윤석열퇴진투쟁이 반미, 반전투쟁으로 승화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의 윤석열퇴진투쟁은 《민주과파 검찰독재 윤석열을 라도하자》,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라도하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주로 역도의 독재정치와 안보위구조정, 민생파탄 등을 규탄하는것이 기본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계층 단체들이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불로 발전해나가자!》, 《미국의 주구 윤석열역적을 끌어내려야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새 정치, 새시대가 열리게 된다》, 《국한점을 넘어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켜야 한다》 등의 구호들과 주장을 내세우고 반미투쟁으로 넘어가고있다.

지금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매일과 같이 서울주재 미국대사관과 각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들앞에서 통성투쟁, 기자회견, 성명발표 등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있는 역도를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기자: 서울시 강서구청장보충선거를 앞두고 《초불승리전환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판결로 될것이다. 《투표항쟁》에 총결기하여 윤석열검찰독재 《정권》에 본때를 보이자고 하면서 격문, 호소문 등을 발표하여 주민들을 불리웠었다.

지금 민심은 서울시 강서구청장보충선거에서 《국민의 힘》것들에게 뒷맛을 보인 기세로 다음해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역적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분위기조성에 힘을 넣고있지 않는가?

연구사: 각계층 단체들은 보충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4월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국민의 힘》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시켜 윤석열 《정권》탄핵을 위한 고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가오는 《총선》을 역도를 파멸에로 몰아넣는 계기로 만들려고 버리고있다.

이를 위해 《정보원》의 선거개입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대통령실》참모들과 행정부 장관들의 부정 부패행위들을 널리 폭로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힘》후보들에 대한 《락선운동》도 벌리겠다고 하고있다.

갈수록 더욱 거세게 타는지는 윤석열역적패당투쟁은 현 집권세력을 더 큰 정치적위기로 몰아넣게 될것이다.

기자: 서울시 강서구청장보충선거를 앞두고 《초불승리전환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판결로 될것이다. 《투표항쟁》에 총결기하여 윤석열검찰독재 《정권》에 본때를 보이자고 하면서 격문, 호소문 등을 발표하여 주민들을 불리웠었다.

지금 민심은 서울시 강서구청장보충선거에서 《국민의 힘》것들에게 뒷맛을 보인 기세로 다음해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역적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분위기조성에 힘을 넣고있지 않는가?

연구사: 각계층 단체들은 보충선거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4월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국민의 힘》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시켜 윤석열 《정권》탄핵을 위한 고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가오는 《총선》을 역도를 파멸에로 몰아넣는 계기로 만들려고 버리고있다.

이를 위해 《정보원》의 선거개입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대통령실》참모들과 행정부 장관들의 부정 부패행위들을 널리 폭로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힘》후보들에 대한 《락선운동》도 벌리겠다고 하고있다.

갈수록 더욱 거세게 타는지는 윤석열역적패당투쟁은 현 집권세력을 더 큰 정치적위기로 몰아넣게 될것이다.



## 《인권모략부》의 가련한 청학늘음

얼마전 괴뢰동일부자들이 서울주재 외국기관들을 대상으로 《북인권》정책추진방향 및 《북인권》중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였다. 《북인권》실상을 널리 알려 국제적인 공동인식을 확산해나간다고 떠들어대는 등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국제화해하려고 구집스레 늘어났다고 한다.

날로 급상승하는 공화국의 국제적위위와 국력강화로 폄지박산의 운명에 처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허황한 《인권》모략소동으로 지탱해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대결광신자들의 가련한 청학늘음이 아닐수 없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오늘날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보유한 나라,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화국을 동경의 눈길로 보면서 공화국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이 미칠수 있는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이런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한갖 기만적인 《인권》모략소동따위로 허물어보려고 발악하는것이야말로 하늘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워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거리이다.

이런것을 두고 맨발로 바위차기, 달보고 개짓는 소리라고 하는것이다.

명백히 하건대 괴뢰동일부자들이 아무리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광분해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치고 그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다.

지금 괴뢰동일부자들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과 《대북정보》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개편안이라는것을 발표했지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금 괴뢰지역의 각계층에서 《동일부가 통일을 내친 표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분별을 조장하는것이리라 지도부흔들기를 멈추라, 당정갈등을 부추기는것은 왜신이 아니라고 맞박아치고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참가관입이다.

《국민은 늘 옳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보충선거에서 《국민의 힘》것들이 17.15%의 차이로 대참패를 당한 이후에 역도가 보수패당을 모아놓고 한 소리 입이다.

민심이 이전에도 옳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옳다는것을 알고있다는 말인데 까마귀주둥이에서 퍼뜨리 소리가 나온 격이라 하겠습니까.

그걸 아는자라면 집권해서 오날까지 《국민》에게 그렇게 못되게 놀아냈겠습니까.

좀 볼가요.

... 로동계: 초보적인 로동련, 생존련 달라.

역도: 《내란세력의 란동》

서민: 물가를 잡아달라, 경제를 살려라.

영도: 이전 《정권》때문에...

언론: 윤석열이 미국에서 《이 새끼를 승인 안하면 어

연다》라고 말했다.

역도: 《가짜뉴스의 진원지》

《국민》: 일본의 사죄 배상.

역도: 《침략자에서 동반자로 바뀌었다》

《국민》: 《한》미일전쟁동맹 반대한다. 전쟁연습 반대한다.

역도: 《《공산전제주의추종세력》에 의한 안보불안》

... 옛 민화대로라면 옳은것은 아니라 하고 옳지 않은것만 골라서 해는 천재구리가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그러나 민심이 서울 강서구청장보충선거를 통해 역도와 그 패당을 준렬히 심판한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자기만을 위한 독재정치를 해온 역도가 갑자기 《국민은 늘 옳다》는 수작을 늘어놓았으니 혹은 어리벉벉한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에이, 가을철 풀벌레의 처량한 울음소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거참패로 서러맞은 호박일신세가 된 《국민의 힘》것들에 대한 위도가 아니면 범죄경력에 있는자들 선거에 내세운 주범인 자기에 대한 변명일수도 있지요.

놓고 먹자판을 련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성》이니, 《쇄신》이니, 《변화》이니 귀맛좋은 소리를 떠벌이였지만 선거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국민의 힘》대표와 원내대표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음해 《국회》의원선거후보추천에서 실권을 가진 당사무총장자리에

어떤 의미에서 나온것인지 알만하지 않습니다.

생색내기, 여론오도, 민심기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꼬집어 말하는것입니다.

《왜 국민이 옳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가?》, 《반성할 능력이나 자격도 없는 윤석열이 더 나쁜것을 하기 위해 자기를 위장하려는것이 분명하다》.

틀린 말이 아닐겁니다.

원칙 친성적으로 무지하고 바보스러운 윤석열역도가 《국민》이 옳은지, 《반성》이 원지 알터이 없고 우직하고 미련하고 저돌적인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을테니까요.

《국민은 늘 옳다》는 역도의 말대로라면 《국민》의 요구는 바로 이렇습니다.

《윤석열탄핵》, 《윤석열심판》.

윤석열역도가 이를 저역한다면 분명 천벌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니까요.

김정혁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보충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국민의 힘》이 파멸간 알룩과 갈등으로 풀이 말이 아니다.

비윤석열파들은 《선거에서 패하고도 당대표가 계속직위를 유지하기로 한것은 현정사상 처음 있는 일》, 《제 밥그릇을 안놓겠다고 부하들만 자르는 꼴》, 《반쪽짜리 쇠신》 등으로 비난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뒤치다거리나 한 당사총수가 총사퇴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반면에 친윤석열파는 대

## 《정쟁으로 끝난 맹탕국감》

얼마전 괴뢰국회에서 그 무슨 《국정감사》라는것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언론들은 이번 국감은 총선을 앞둔 여야정쟁의 극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리제명대표의 사정배당비판, 해병대 상병사망사건, 양명곡수도로 의혹, 후쿠시마오염수방류 등 이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를 반복했다. 《국민의 힘》 역시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의혹과 탈원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경의혹 등 윤석열 《정부》출범이후 줄곧 제기해온 문제로 공세를 폈다. 국감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고 평하고있다.

괴뢰언론들이 비난한것처럼 이번 괴뢰국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여야당쟁거리들의 개싸움전마당이었다.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주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있다》, 《집권1년반도 안되어 총체적인 부도위기를 빚어냈다》고 윤석열역도의 《국정운영》실태를 부각시키면서 《국민의 힘》것들을 몰아냈다. 한편 《국민의 힘》것들은 야당들의 《국정운영실태》주장은 근거없는 가짜위기설》이며

행동만 하는자들이 득실거리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이런 속에 《국민의 힘》내부에서는 신당창당설까지 여론화되면서 알룩과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괴뢰지역의 언론들은 비윤석열계 한 인물의 《떠나는 것, 신당을 창당하는것은 늘 열려있는 선택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12월경에 결심하겠다》라는 발언과 전 《국

《국민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모지름을 썼다.

이러한 여야당사이의 서로 물고뜯는 싸움질과정에 야당의 집단발발로 《국정감사》가 8시간 넘게 중단되거나 중인으로 선정한 관계자들이 모두 출석을 거부하여 《국정감사》를 시작도 못한 매도 있었다고 한다.

하기에 괴뢰지역의 각계층은 이번 괴뢰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정쟁으로 시작하여 정쟁으로 끝난 맹탕국감》이라고 비난하고있다.

김창호

문가들은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당창당은 《국민의 힘》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여당의 다음이 《국회》의원선거전망은 어두운 정도가 아니다. 참패하고말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현실은 내부갈등과 파벌싸움, 신당창당설 등으로 흩어져가고있는 《국민의 힘》, 반역당의 앞날에 파멸의 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웠음을 실증해주고있다.

김현일

《방언제조기》로 오명높은 윤석열역도가 최근에 있는 중동행각에 공화국의 자위적역력강화에 대해 그 무슨 《도발》이니, 《유엔결의》위반이니 하며 또다시 침방울을 튀겨냈다.

대결정신병자의 지랄중세라고 해야 할것이다.

윤석열역도가 제 집안에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다 못해 썩하면 밖에 나가 반공화국대결명언을 마구 짚어대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하기에 역도가 이번 중동행각에 그 무슨 《북의 도발》에 대해 떠들어대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상 밝히지만 공화국은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역력을 키우는것이다.

역도가 말팔마다 떠벌이는 《북의 도발과 위협》이란 저들의 무모하고 광

란적인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이 초래할 파국후과에 대한 근심고민과 피해망상중에 따른 케반이며 체질적인 대결정신병자의 발작일뿐이다.

더우기 이번 중동행각은 최근 강서구청장보충선거를 통해 드러난 무지무능과 선거패배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도 퍼서행각이며 복잡한 중동지역에 동남바가지들 들고나가 제 리속을 채워보려는 비루한 구경행각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은 윤석열역도야말로 대결미치광이이고 정치미숙아이며 세계 어떻게 흐르는지도,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는 지적저능아라는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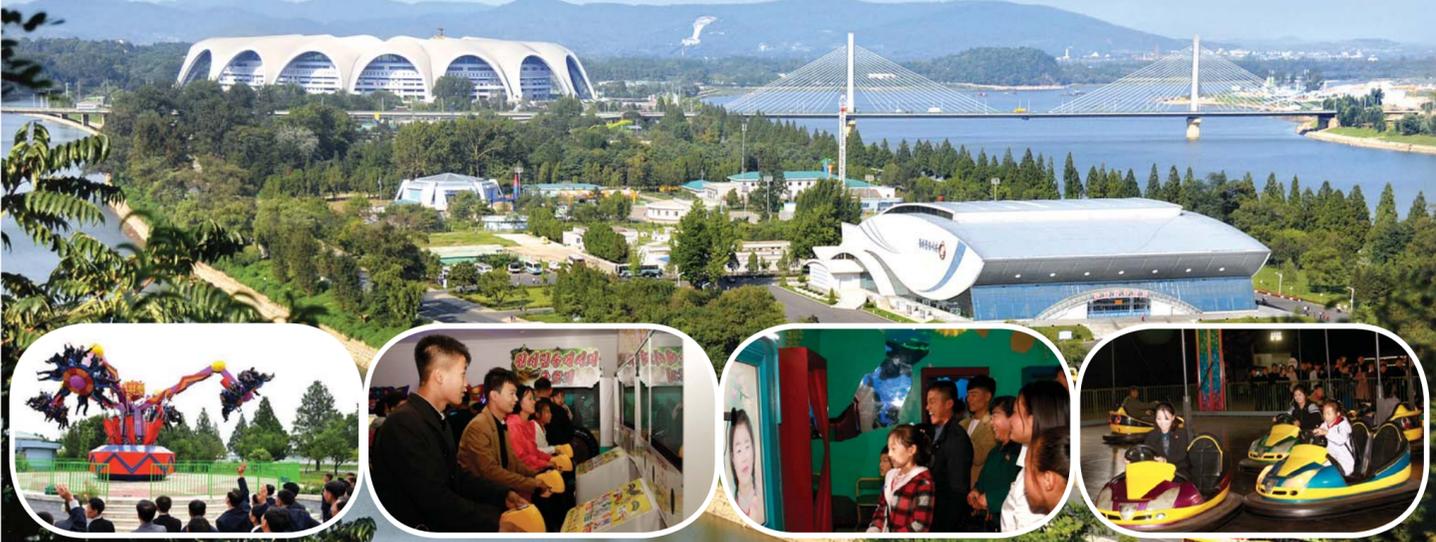
단언하건대 역도가 아무리 동분서주하며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해도 그것으로 얻을것이란 외교참사와 명신, 내외의 비난조소뿐이다.

박진홍

## 선거패배의 후유증, 심화되는 알룩

다들 알룩이 심화되고있다. 선거패배의 후유증, 심화되는 알룩

# 릉라도에 펼쳐진 웃음과 람만의 세계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롱라도에 자리잡은 롱라인민유원지에서 즐거움에 겨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신비로운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거울집은 첫 구역에서부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있다. 발발에서는 물고기, 거북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절벽, 바위, 바다가 련속 교차되어 마치 출다리를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걸어가는 모습들은 절로 웃음이 나오게 한다. 갑자기 어둠에 잠긴 미로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아이, 깜짝이야!》 하며 놀라 웅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모두가 긴장감으로 숨을 죽이며 가는데 만화영화 《소년장수》에서 나오는 이리가 칼을 빼들고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목격한 첩위를 쫓고 서있는 소경추장, 머리우에서 떨어지는 쇠발의 첩위, 동굴속에서 들려오는 호비의 음침한 목소리... 무시무시한 이곳을 지나니 뜻밖에도 화창한 봄날과 울창한 수림의 정서가 동시에 와닿는 황홀경이 펼쳐져 눈부리를 아득하게 한다. 웃음집에서의 재미는 또 어떠

한가. 이 거울앞에 서면 순간에 난쟁이와 똥똥보가 되고 저 거울앞에 가면 또다시 키다리마라 팽이가 되는 신기한 거울앞에서 아이들은 물론 점잔을 빼던 어른들도 러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한다. 유원지에 있는 립체물동영화관도 아찔한 쾌감을 맛보고저 누구나 즐겨 찾는 곳이다. 영화를 보고는 저저마다 《비행기를 또 타고싶다.》, 《평장리 큰 물고기가 내얼을 스쳐갈 뎨 정말이지...》, 《지금껏 해보지 못한 모험을 여기서 해보

았다.》라고 하며 너도나도 탄성을 터친다. 각이한 오락기재들이 구비된 전자오락관에서의 흥취도 이만 못지 않다. 전투직승기에 앉아 나타나는 목표들을 능숙하게 쏘아맞히는 어린이의 모습, 오토바이에 올라 새라새를 타는 장에 물들을 극복하느라 진땀을 빼는 남자손님, 몸중심을 유지하며 스키타기에 열중하는 처녀들은 모두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듯싶다. 번쩍이며 돌아가는 유희기구를 해보지 못한 모험을 여기서 해보

모두 내려앉은듯한 롱라인민유원지의 물아경 또한 보는 사람들의 넋을 순간에 앗아간다. 밤공기를 헤가르며 하늘높이 솟구쳤다가 내리꽃처럼 떨어지는 패공을 주는 회전대, 유수철같이 순간에 튕겨서 허공 떠오르는 뽕성회전반, 온몸이 절로 긴장되게 하는 수직회전그네, 유패한 웃음소리 그칠새 없는 전기자동차... 곳곳에서 유희기구를 타며 좋아 웃고 떠드는 모습들을 흐뭇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쁨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 선진적인 피복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화국의 피복연구부문과 생산단위들에서 선진적인 피복기술을 부단히 연구하고 새롭게 발전시켜나가고있다. 평양시피복공업리국 피복기술준비소에서는 옷가공을 더욱 세련시키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으면서 피복생산단위들에서 작업공정을 표준화, 규격화하기 위한 기술지도 방법론있게 해나가고있다. 이곳에서는 세분화된 옷설계방법과 옷설계지원프로그램을 적극 받아들여 옷설계의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최근에만도 10여개의 품종에 따르는 30여건의 규격을 작성하여 생산의 질적수준을 보장하였다고 한다. 모란봉릉라도피복공장에서 는 대가공공정에서 기술적으로 엄격히 지켜 모든 제품들이 질이 철저히 보장된 제품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 새로운 옷설계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설계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설계의 정확성을 높여 각각의 품종에 따르는 사람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하고있다. 손님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게 계절옷들을 잘 만들어 봉사하는 것으로 이뿐만 아니라 대성구역종합양복점 대성양복점에서 옷가공기술을 높이는것을 주선으로 들어주고 봉사활동을 벌리고있다.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가공자들은 설계안을 놓고 이 옷의 장점을 살리려면 어떤 가공기술을 도입하여야겠는가를 생각하고 기술합의를 먼저 본다. 그다음 하나의 재봉선을 막아도 선이 흐르거나 또 신축가



모란봉릉라도피복공장에서

## 중신세의 고래화석 새로 발굴, 천연기념물로 등록

공화국의 함경북도 명간군 호산리에서 중신세의 고래화석을 새로 발굴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연구집단은 명간군민족유산보호연구소 일군들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명간군 호산리에 대한 조사발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생대 신제3기 중신세 중부층에서 고래의 대가리뼈화석 1개, 갈비뼈화석 10개, 척추뼈화석 12개와 나무인화석 4개, 포본화석(화석화된 식물의 포자나 꽃가루)

260개, 규조화석(화석화된 단세포식물) 18개를 발굴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자연과학부에서는 고래화석(길이 8m정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화석이 신생대 신제3기 중신세 중부(1 597만

년-1 163만년전)에 살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멸된 고래화석이라는것을 확증하고 명간고래화석으로 감정분류하였다. 또한 포본화석과 규조화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당시 호산리일대에 넓은 바다

와 육지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이 형성되어있었고 동식물들이 살아가수 있는 유리한 자연기후조건이 갖추어져있었다는것을 해명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고래화석과 포본화석, 규조화석을 발굴함으로써 공화국에서 고래의 기원과 진화, 생태환경연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물질적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미 신생대 신제3기 중신세(2 300만년-533만년전)에도 포유류를 비롯한 동식물의 진화가 계속되었고 인류의 발생에 유리한 고생물학전제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었다는것을 명백히 입증할수 있게 되었다. 명간고래화석은 천연기념물 제299호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 조선은돌 (1) 글 리빈, 그림 채대성

의식이 회복되는 순간 박연(본명 존 웰레브레)은 일어선듯하고 몸부림쳤다. 허리가 푹 부러지고 다리가 비틀리는듯한 아픔에 그는 저도 모르게 《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필떡 쓰러졌다. 그 찰나 눈앞에 사람형체가 일렁거렸다. 그는 흠칫 놀라 《외적이? 내 칼!》 하고 다급히 부르짖으며 부리나케 칼을 찾아 바닥을 더듬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올거니! 조선말을 아는 사람이로구나. 좋아, 가만 누워있으라구. 그러면 해로워... 외적들한테 혼이 난 뒤여서 그러는군. 그놈들은 멀리 도망쳤으니 안심하라구.》 《...》 어떤 늙은이 하나가 그의 팔을 이불속으로 밀어넣으며 환자가 다시 몸을 뒤들가봐 지어하듯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르고있었다. 그밖에 낯선 사람들 서넛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 박연은 통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이 아닌 것같은데? 하다면 누구들이란 말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 그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여기가 어딘지... 아버님은 누구신지?》 《여긴 황해도 봉산방 칠곡이라는 산골이구 난 유필군이란 늙은이일세.》 유로인은 부드럽게 대답을 하고나서 곁에 앉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 칠곡동네 사람들일세. 자네의 병이 걱정되어 이렇게와 있네.》 하고 알려주었다. 유로인의 이웃들은 《내네 정신을 못차리구있을 뎨 정말 별생각이 다 들더니...》, 《눈은 못뜨지 술결은 금방 끊어질듯 가늘었지. 당장 무슨 변이 나는것만 같아 혼이 났어.》, 《아, 이젠 술이 나간단다.》 하고 못내 기뻐하며 이불 밑으로 손을 들이밀고 환자의 손도 잡아보고 흠뻑 땀이 배인 이마를 살금 살금 문대주기도 하였다. 박연은 이들의 따뜻한 인정에 눈물겨운 감동과 함께 의욕도 생겼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생면부지 라족사람인 나의 소생을 두고 이렇게들 다스려주려하는가?》 유로인과 이웃들은 상처를 봐야 한다면 환자의 다리

유로인이 환자의 허리밑에 어린애배개모양으로 된 두툼하고 납작한 형질주머니를 밀어넣었다. 형질주머니에서는 허연 길이 문문 서리였는데 솜털한 무우시래기뎨가 났다. 《여긴 황해도 봉산방 칠곡이라는 산골이구 난 유필군이란 늙은이일세.》 유로인은 무슨 가루약을 손가락에 담아 환자의 입에 떠넣으며 《이건 산대추 씨가루인데 이걸 쓰면 아픔도 한결 멎구 잠도 잘 오느니라.》 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였다. 《이 사람 젊은 병정, 마상처들의 우시는듯한 아픔은 차츰 가셔지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그는 혼근히 잠이 들었다. 그가 눈을 떠보니 벌써 날은 어두웠는데 밖에서는 눈보라가 아우성치고있었다. 문풍지가 데릴하듯 부르르거렸다. 바람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질겁하였다. 《아! 추위!》 그는 당장 눈보라속에 내던져지기도 하는듯 치를 떨었다. 했으나 다음순간 온몸의 훈훈한 느낌으로 하여 공포는 찾아오지 않았다. 뜨끈뜨끈한 구들바닥이 달구어주는 잔등의 더운 느낌이 그가 막히게 상쾌하였다. 몸과 마음이 나는듯싶었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바닥을 더듬었다. 부지불식간에 단성이 튀어나왔다. 《아, 조선구들! 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는 확신하였다. 《이렇듯 더운 구들이 아니라면 나는 벌써 저세상으로 갔을것이다.》 셋물(사이문)이 열리면서 부엌으로부터 오지화로를 든 유로인이 들어왔다. 약탕관이 끓고있는 화로는 어느덧 방안공기를 화끈하게 해놓았다. 박연은 호호한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저 화로는 참으로 값나가는 귀물이야. 여기 조선사람들은 더운 구들, 귀한 화로덕분에 겨울이 아무리 추위도 무시무시 안하거던. 구들, 화로, 정갈 좋은 풍속이야. 좋은 풍속...》 유로인은 배척이 깔린 독배

기에 란관의 꿩은 약을 얻어 쏟았다. 그는 막대기 두개로 베친 란머리를 휘감아 당약을 짰다. 걸쭉한 약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유로인은 더운 김이 물물 피어나는 약물을 박연에게 먹였다. 훌훌 불어가며 뜨끈한 당약을 마시고나니 당장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 매를 같이하여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한결 덜던 크고 작은 상처들의 아픔이 씻은듯 사라지는것만 같았다. 땀처럼 흐르던 몸이 풀리는지 속이 시원하였다. 북받치는 감격을 누를길 없던 그는 자기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토목수건으로 문질러주고있는 유로인의 손을 외곽 움켜잡았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말... 난 다 죽었던 몸인데, 하늘같은 이 은공 내 진정 값졌소이다.》 《젊은 병정, 자네 안할 말을 하는구만. 자네 고맙고만 있겠나. 더구나 자네는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 원수놈들을 막다가 상한 사람이 아닌가.》 《?!》 박연은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며 재차 물었다. 《아버님, 내가 어떻게 되어 아버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요? 난 외적의 창에 찔려 병상에 누워있는 순간 죽는줄로만 알았는데?》 《중금할테지. ...칠곡마을 변두리에서 우리 군사들과 외적들사이 싸움이 벌어지자...》 유로인은 말을 이어나갔다.

## 다양하고 풍부한 조선장단

조선장단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우리 선조들은 북 하나만 가지고도 춤이 절로 나오게 할만큼 흥겨운 장단을 연주하곤 하였다. 우리의 민속악기들중에는 락악기가 많은데 지난날 음악형상에 리용된 북만 해도 크기와 모양새가 각이한것이 수십종이나 된다. 우리 선조들은 북이나 장고 없으면 동이나 양푼, 함지에 바가지를 얹어놓고 바가지장단을 쳤다.

조선장단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우리 선조들은 북 하나만 가지고도 춤이 절로 나오게 할만큼 흥겨운 장단을 연주하곤 하였다. 우리의 민속악기들중에는 락악기가 많은데 지난날 음악형상에 리용된 북만 해도 크기와 모양새가 각이한것이 수십종이나 된다. 우리 선조들은 북이나 장고 없으면 동이나 양푼, 함지에 바가지를 얹어놓고 바가지장단을 쳤다.

장단은 흔히 부드럽고 우아하며 깊이있고 정서적인 곡조에 맞고 굵거지장단은 룰동적이고 흥취나는 곡조에, 양산도장단은 흥겹고 약동적인 곡조에, 안방장단은 락천적이며 경쾌한 곡조에 잘 어울린다. 조선장단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수많은 음악종목들과 작품들에서 다채롭게 형성되었다. 본사기자



## 가을철에 관심을 돌려야 할 점

가을철에 관심을 돌려야 할 호흡기계통 가을철은 아침 저녁이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해지는 등 하루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건조한 시기이므로 호흡기계통이 영향을 받을수 있다. 그것은 날씨가 조금만 차져도 사람들이 인차 감기에 걸리거나 목소리가 변하는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그러므로 가을철에는 호흡기계통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오미자, 살구씨, 생강, 구기자, 대추, 참깨, 호박, 홍당무, 무우, 파, 두부, 민물고기 등과 같은것을 식생활에 많이 리용하는것이 좋다.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소화되기 쉬운 식품을 선택하고 식사를 천천히 해야 한다. 기름기가 적고 자극이 약하며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 또한 식품의 온도가 적당해야 하며 매끼 배가 70~80%정도 부르케 먹고 식품의 종류와 조리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본사기자

가을철에 관심을 돌려야 할 호흡기계통 가을철에 관심을 돌려야 할 호흡기계통 가을철에는 아침 저녁이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해지는 등 하루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건조한 시기이므로 호흡기계통이 영향을 받을수 있다. 그것은 날씨가 조금만 차져도 사람들이 인차 감기에 걸리거나 목소리가 변하는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그러므로 가을철에는 호흡기계통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오미자, 살구씨, 생강, 구기자, 대추, 참깨, 호박, 홍당무, 무우, 파, 두부, 민물고기 등과 같은것을 식생활에 많이 리용하는것이 좋다.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소화되기 쉬운 식품을 선택하고 식사를 천천히 해야 한다. 기름기가 적고 자극이 약하며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 또한 식품의 온도가 적당해야 하며 매끼 배가 70~80%정도 부르케 먹고 식품의 종류와 조리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본사기자

가을철에 관심을 돌려야 할 호흡기계통 가을철에 관심을 돌려야 할 호흡기계통 가을철에는 아침 저녁이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해지는 등 하루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건조한 시기이므로 호흡기계통이 영향을 받을수 있다. 그것은 날씨가 조금만 차져도 사람들이 인차 감기에 걸리거나 목소리가 변하는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그러므로 가을철에는 호흡기계통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오미자, 살구씨, 생강, 구기자, 대추, 참깨, 호박, 홍당무, 무우, 파, 두부, 민물고기 등과 같은것을 식생활에 많이 리용하는것이 좋다.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소화되기 쉬운 식품을 선택하고 식사를 천천히 해야 한다. 기름기가 적고 자극이 약하며 신선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 또한 식품의 온도가 적당해야 하며 매끼 배가 70~80%정도 부르케 먹고 식품의 종류와 조리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본사기자